

---

##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원심력과 구심력: 에너지, 교역 및 투자를 중심으로\*

이 상 준\*\*

---

- 개요 -

소련 해체 이후 체제전환을 시작한지 20년이 지났지만 포스트 소비에트 유라시아 국가 사이에는 많은 제도적 공통점이 발견된다. 하지만 제도적 이질성도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유라시아 연합은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가 가진 우위를 더 이상 역외 국가에게 양보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다. 경제통합은 정치적인 결정에 의하여 발명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적인 장벽을 없애려는 참여 국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2015년부터 유라시아 연합은 출범하고 운영될 것이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모델을 정립하면서 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이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융, 자원, 식량, 산업 협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경제통합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이들 국가의 몫이지만 역외 국가로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역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한국의 대 유라시아 연합과 관련된 통상협력 정책은 첫째, 이미 우리 정부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새롭게 정립되는 유라시아 공간에 어떻게 적절하게 재배치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둘째, 새롭게 출범하는 유라시아 연합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경제성을 구분하기 위하여 역외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재설정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유라시아 연합과의 관계를 빠르게 FTA 등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시장개척, 자원개발, 금융교류의 상호 협력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주 제 어: 유라시아 경제연합, 무역, 투자, 상호의존도, 제도적 조건

---

\* 이 연구는 2014학년도 국민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1. 서론

모든 경제통합은 정치적인 현상이다.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정치적인 결정에 의하여 형성하고 있다. 경제통합은 경제적으로 공동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 간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는 등 여러 조치를 채택하여 광역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각 가맹국들은 큰 시장의 경제적·기술적 이익을 향유하며, 궁극적으로 경제통합 전체가 후생(welfare) 증진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기에 경제통합은 정치적으로 형성되지만 그 유지는 회원국의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경제적 구조에 의하여 결정된다. 만일 경제통합이 가맹국에게 경제의 기회 균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비차별적 거대 공동시장 영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면 경제통합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해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러시아가 주축이 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러시아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전략적인 선택에 의하여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이 글은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출범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구하는 형식으로 논거를 전개하고자 한다.

정태적인 측면에서 첫째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바탕이 될 구심력이 회원국이 될 국가들 간에 존재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구심력은 회원국간 상호 작용하는 이주, 교역, 재정, 운송, 정보, 기타 수많은 기능이 회원국간 경제적 의존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되는 경제적 투입과 산출이 엄밀하게 계산되어야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언어, 민족, 문화적인 매력과 친밀도로 표현되는 긍정적인 요인과 외부로부터의 위협이라는 부정적인 요인도 구심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물론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지표에 의존하여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회원국과 잠재적 회원국간 구심력을 파악할 것이다.

둘째는 소련이라는 동일한 제도적 유산을 공유하였지만 체제전환의 과정을 거치면서 유라시아 국가들의 제도적 차이는 커져왔다. 체제전환 이후 나타난 각국의 제도적 차이는 지정학적 위치, 부존요소, 국민들의 합의 등 다양한 요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개방화된 세계체제에서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수렴하는 것 못지않게 분산하는 힘도 커져왔다. 경제연합으로 출범하게

되면 하나의 단일시장으로 출현하게 되고 원심력은 줄어들게 되지만 아직 유라시아 연합에 가입을 결정하지 않은 국가에게 있어서는 경제연합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구심력 못지않게 경제연합 바깥 국가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생겨나는 원심력도 클 수밖에 없다. 원심력 역시 경제적인 상호작용 뿐 아니라 경제외적인 현상에 의해서도 생겨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는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자본, 투자, 무역, 이주라는 물리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라시아 연합의 구심력을 파악하며 또한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회원국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현재 상황에서는 역외국이며 잠재적인 회원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파악하고자 한다.

동태적인 측면에서 유럽통합이 거의 30년 이상을 지나 EU로 발전하였던 것과 달리 유라시아 관세동맹이 출범한지 2-3년 만에 경제연합을 출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또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고자 한다.

## 2.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특징

사회주의 붕괴 이후 수많은 구소련 국가들은 민간부문 육성과 더불어 자본주의 체제 구축을 추진하였다. 국영기업은 사유화되었고 민간부문의 경제적 비중은 커졌고 사유화된 기업들 일부는 대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석유와 천연자원은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자본주의 체제 형성과 개방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생겨났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참여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발생한 문제는, 첫째, 소련 해체 이후 출현한 신생국가들이 개방된 자본주의 세계 질서에서 서구의 세력 및 자본과 무차별적인 경쟁을 벌이면서 발생한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국제시장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출되면서 한계기업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특히 구소련 국가들 대부분은 국가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되는 상황이었기에 제도 정비에 있어 상대적으로 동구권 국가에 비하여 불리하였다. 러시아와 CIS 국가들은

IMF와 WTO 체제를 통하여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였지만 이러한 조치를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제전환 초기 극심한 경제침체를 경험하였다.

둘째, 체제전환 과정과 글로벌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세계 체제가 가지는 변동성이 개별국가의 경제적 위기로 연결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더욱이 2008년 금융위기 발생과 그 극복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미국의 경제정책은 CIS 국가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물론 개방정도에 따른 피해와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1945년 이후 형성된 자본주의 세계경제질서는 끊임 없는 위기를 경험하였으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이하였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원인이 글로벌 불균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세계체제는 글로벌 교역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지역화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2014년 1월 31일 기준으로 583개의 지역 무역협정이 선언되었고 이중 377개는 이미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지역 무역협정에 따른 무역 규모는 전체 무역의 절반을 넘어선지 오래되었다.<sup>1)</sup> 이와 같은 움직임이 포스트 소련 공간에서도 형성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진다.

CIS 국가들만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있는데 먼저 소련 해체 이후 이 지역 공간에 위치한 국가들 사이에는 계속적으로 통합의 동력과 운동이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소련시기 만들어진 제도의 유산으로 비록 체제전환을 시작하여 서로 다른 제도가 이식되고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러시아 주도의 경제통합에 참여하기 쉬운 조건이 되었다. 포스트 소비에트 유라시아 국가간 협력의 움직임은 앞서 언급한 신자유주의 개혁 프로그램이 남긴 상흔을 치유하기 위한 이 지역 국가들의 정치적 사회적 운동이 대외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다음 <표 1>은 체제전환 이후 CIS 국가간 양자 FTA 체결 연도 현황을 보여준다.

1) 이러한 지역협정에 참여하여 이해관계가 맞는 다른 국가와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다른 세계의 국가와 제도상의 조화를 쉽게 이루게 하여 궁극적으로 세계화를 달성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현실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이미 출범한 다양한 경제통합체들이 블록화되지 않고 점차적으로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동력이 계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CIS 국가간 양자 FTA 추진 연도 현황

	ARM	AZE	BEL	GEO	KAZ	KYR	MOL	RF	TAJ	TUR	UKR	UZB
ARM	-			98	01	94	93	93		96		
AZE		-		96	97		95	92		96	95	96
BEL			-				93	96	98		96	93
GEO	98	96		-	99		98	94		96	96	95
KAZ	01	97		99	-	95	95	92				97
KYR	94				95	-	95	93			98	98
MOL	93	95	93	98	95	95	-	93		93	95	95
RF	93	92	96	94	92	93		-			93	92
TAJ			98						-		93	92
TUR	96	96		96			93			-		96
UKR		95	96	96		98	95	93	93		-	94
UZB		96	93	95	97	98	95	92	92	96	94	-

자료: WTO(\* 국가명은 영문 약어로 표시하였음).

한편 러시아와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은 저발전 상태에 놓여있게 됨에 따라 국가발전을 위한 다양한 개발 수요가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역외 국가들과의 협력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지 않다. 예를 들어 무역을 위한 시장개방은 경제발전에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과 EU가 주는 혜택은 제한적인데 무엇보다도 자원을 제외한 분야에서 이들 지역 시장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 유라시아 국가의 기업들이 많지 않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CAREC), 유럽-코카서스-아시아 교통회랑(TRACECA) 등을 통하여 중앙아시아 지역과 카프가스 지역을 관통하는 교통 및 에너지 회랑 건설과 무역 원활화 조치들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기술 유입이 필요하다. 역외 선진국과 비교하여 제도, 문화, 과학기술, 역사적 연관성으로 러시아는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제도, 자본, 기술 유입의 기회를 유라시아 국가들에게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다.

위의 유라시아 연합 형성의 몇 가지 요인들은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촉발된 것도 있지만 러시아 및 CIS 국가들의 특징으로 인한 것도 있다. 요약하자면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유라시아 국가의 내부적인 특성과 세계 경제의 특징이 교호작용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물론 소련의 해체가 준비되지 않은 사건이었고 그래서 푸틴이 강한 러시아의 한 단면으로서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치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다.

### 3.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구심력과 원심력

유라시아 연합이 경제통합으로서 성립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원국간 경제적 연결에 의한 구심력이 중요할 뿐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정책이 가지는 수렴성, 보완성 등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CIS 국가간 역내 무역 규모는 다른 경제통합체와 비교하여 남아시아 지역국가 연합(SASRC) 보다는 높지만 그 이외의 경제통합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그림 1> 참조).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잠재적인 회원국들인 CIS 국가들의 무역구조를 보면 GDP대비 무역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무역에서 CIS 국가의 비중이 최대 55%에서 최소 15%로 나타나고 있다. 자원빈국을 제외하면 무역에서 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상대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2> 참조).

<그림 1> 유라시아 국가의 역내 무역 비중 비교(2008)



자료: DOTS, IMF; Vinokurov(2013), 11 재인용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이러한 추이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경우에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에 위치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내륙 국가라는 취약점으로 인하여 지리적인 변수에 의하여 무역과 투자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륙 국가이기에 개별 국가의 의지와 효율성과 상관없이 인접

한 이웃 국가와의 물리적 장벽,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경제 제도의 차이 등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수입가격 상승 부담과 수출소득 감소라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게 된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참여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세계경제 제로의 통합에 있어 지정학적 요인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 먼저 중앙아시아의 남쪽에 위치한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은 분쟁지역으로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남쪽을 경유하여 세계시장으로 접근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다. 또 인도시장이 존재하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발달된 시장은 아니다. 동쪽에 위치한 중국의 신장위구르 지역과 몽골은 상대적으로 남쪽 지역보다는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최근 중국이 서부대개발 정책과 더불어 신실크로드 구상을 통해 중앙아시아 에너지 및 교통 회랑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세계은행과 주요 국제 개발기구들이 중앙아시아 교통 및 에너지 회랑에 적극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이 지역의 물리적 장벽을 해소하는 노력은 커지고 있다(표 3 참조). 이러한 교통 및 에너지 회랑들은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여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2> CIS 국가 무역 구조 (2011)

	주요 상대국 무역 비중 (%)			전체 무역대비 자원수출 (%)	GDP 대비 무역비중 (%)
	CIS	중국	EU		
ARM	30	9	31	31	74.35
AZE	16	3	42	95	79.35
BEL	55	4	25	29	158.94
KAZ	26	17	47	76	77.94
KYR	52	15	8	8	149.16
MOL	36	6	45	1	127.86
RF	15	9	47	66	51.58
TAJ	-	34	6	4	-
TUR	-	21	20	71	-
UKR	40	5	29	13	110.21
UZB	-	16	16	24	-

자료: EDB(2012)

&lt;표 3&gt; 중앙아시아 새로운 가스 파이프라인

구간	길이	용량
카자흐 구간 (우즈베키스탄-중국)	1,300 km	1단계 연간 4.5Gm <sup>3</sup> /yr 2단계 연간 40Gm <sup>3</sup> (2013 이후)
투르크메니스탄 구간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188 km	수출용량 연간 30 Gm <sup>3</sup> (2009)
우즈베크 구간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530 km	수출 용량 연간 30Gm <sup>3</sup> (2010)
TAPI (트랜스 아프간-파키스탄-인도)	1,680 km	연간 30 Gm <sup>3</sup> (계획)

자료: Catherine Locatelli & Sylvain Rossiaud(2013), 18.

중국에서 시작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을 관통하는 교통 및 에너지 회랑이 카프카스 지역을 통하여 러시아를 우회할 수도 있지만 러시아와 이미 연결된 기존의 인프라를 보완하거나 병행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다른 국가로의 접근과 세계시장으로의 통합을 위한 선택 가운데 비교적 쉬운 것이다.

카프카스 3개국인 중앙아시아 5개국과는 다른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가진다. 공해로 나갈 수 있는 바다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지아는 유라시아 경제통합에 참여할 인센티브가 적다. 또한 조지아를 경유하여 유럽으로의 직접적인 연결이 가능한 아제르바이잔의 경우에도 동기부여가 약하다. 반면 내륙국가인 아르메니아는 터키, 아제르바이잔과의 오랜 갈등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남쪽으로 이란과 접경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참여하는 것에 강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제르바이잔이 가지는 지정학적 중요성은 강화되고 있다. 최근 푸틴 대통령은 아르메니아가 이미 가입한 유라시아 관세동맹에 아제르바이잔도 가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U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몰도바 역시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성에 따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벨라루스는 EU로의 접근이 용이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지만 오래전부터 형성된 러시아와의 역사성으로 이미 관세동맹에 참여하고 있어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참여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몰도바는 지정학적으로 EU로 접근이 용이하고 역사적으로 루마니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라시아 경제연합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



가 약하다. 크림과 동부지역 사태로 러시아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역시 EU로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공해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EU와 EAU 사이에서 스윙(Swing) 국가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고 할 것이다.<sup>2)</sup>

<표 4> 구소련 국가의 WTO 가입 현황

	국가	가입 시기
WTO 회원국	키르기스스탄	1998년 12월 20일
	조지아	2000년 6월 4일
	몰도바	2001년 7월 26일
	아르메니아	2003년 2월 5일
	우크라이나	2008년 5월 16일
	러시아	2012년 8월 22일
	타지키스탄	2013년 3월 2일
WTO 비회원국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자료: www.wto.org(검색일: 2014.09.30).

한편 포스트 소비에트 유라시아 국가들이 세계 경제로의 통합에 있어서도 편차를 보인다. WTO에 가입한 현황을 보면 키르기스 공화국, 조지아, 몰도바,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타지키스탄은 WTO에 가입하였고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은 WTO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표 4> 참조). 유라시아 국가들은 세계 경제로의 통합, 부존요소, 지리적 위치 등으로 역내 혹은 역외 국가와의 협력 정도가 차이를 보인다. 러시아는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여 구소련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층 높은 수준의 제도 통합을 통하여 역내 교역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유라시아 관세동맹이 본격적으로 출현한 다음 2009년과 대비하여 2011년 유라시아 관세동맹국간 무역 규모는 70% 정도 성장하였다. 하지만 역내 국가

2)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참여를 주저하는 국가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분쟁지역을 가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크림은 이미 러시아에 합병되었고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는 분리 독립을 선언하였다. 몰도바내 트란스니스트리아 역시 독립을 선언한 상태이며 조지아내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아도 독립을 선언한 상태이다. 아제르바이잔내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공화국 역시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실상 독립을 한 상태이다.

간 무역 비중은 25%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sup>3)</sup> 이러한 편차로 인하여 유라시아 연합이 구성될 경우 회원국별 무역 창출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유라시아 연합의 물리적 장벽이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거둬내는지에 따라 이러한 역내무역 의존도의 편차는 사라질 것이다. 유라시아 관세동맹이 출현한 이후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국경 통관이 쉬워졌지만 여전히 기술적인 장벽은 존재하고 있다. 이미 카자흐스탄으로 들어온 물품에 대한 서류가 다시 러시아 국경을 통과할 때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개별 국가 차원에서 검사와 심사에 관련된 서류가 반복적으로 요구된다면 기업들이 관세동맹국 시장으로 진입이 자유롭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표 5>는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의 무역, 관세율, 물류성과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을 제외하고 대다수 국가들의 가중 평균 관세율이 5% 내외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전체 평가대상 160개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6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88위, 러시아 90위, 아르메니아 92위, 벨라루스 99위 등으로 전체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표 5> 유라시아 국가의 무역, 관세율, 물류성과지수

구분	무역 (GDP 대비 %)		관세율 (MFN, 가중평균)	물류성과지수(LPI) 및 순위
	1991	2012	2011	2014
아르메니아	100.9	72.3	2.96	2.67 (92)
아제르바이잔	86.9	74.3	5.64	2.45 (125)
벨라루스	70.2	158.7	4.39	2.64 (99)
조지아	58.9	96.2	1.84	2.51 (116)
카자흐스탄	149.3	78.5	6.95	2.70 (88)
키르기스공화국	72.0	136.2	4.09	2.21 (149)
몰도바	66.4	128.1	3.50	2.65 (94)
러시아	26.3	51.6	6.25	2.69 (90)
타지키스탄	65.4	73.9	8.07	2.53 (114)
투르크메니스탄	65.5	123.1	-	2.30 (140)
우크라이나	50.1	110.3	2.41	2.98 (61)
우즈베키스탄	74.4	64.4	10.04	2.38 (129)

자료: <http://data.worldbank.com>(검색일: 2014.09.30).

3) EBRD(2012), *Transition Report 2012: Integration Across Borders*, p. 65.

유라시아 국가들의 무역제한지표(Trade Restrictive index)<sup>4)</sup>를 살펴보는 것은 이들 국가의 무역장벽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다음의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유라시아 국가들은 중간에서 높은 수준의 무역장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6> 무역제한지표 (관세, 서비스, 전체)

	관세		서비스 지표 (전체)	전체	
	지표 값	순위		지표 값	순위
ARM	-	-	11.4	-	-
AZE	5.3	71	-	-	-
BEL	8.81	93	35.1	16.88	73
GEO	-	-	11.5	-	-
KAZ	2.05	39	17	12.42	65
KYR	3.5	50	15.2	-	-
MOL	2.6	41	-	5.1	11
RF	5.51	73	25.7	18.99	82
TAJ	-	-	-	-	-
TUR	-	-	-	-	-
UKR	4.2	56	27.2	18.8	80
UZB	-	-	23.4	-	-

자료: Cusolito & Hollweg(2013), 5.

대외무역만으로 판단하면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들과 잠재적인 회원국이 될 수 있는 국가들간 협력의 원심력이 커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은 투자와 대외 채무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 <표 7>에서는 2010년 후반까지 누적된 CIS 국가간 투자 누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 외국인투자에서 CIS 국가들의 투자 비중은 가장 높은 벨라루스의 경우에도 44.2%이며, 12개 국가들의 단순 평균을 내면 20% 내외이며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으로의 외국인투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중 평균을 한다면 평균은 더욱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많은 투자가 CIS 역내에서 유입되기 보다는 역외 국가(미국, EU, 중국, 한국, 일본, 인도, 이란)들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

4) 무역제한지수는 국내 후생을 유지하는 동일한 단일관세를 통하여 계산되며 수입 비중과 수입수요 탄력성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계산된다.

&lt;표 7&gt; 2010년 후반까지 CIS 국가간 투자 누계

수취국	투자국 (백만불)						전체 대비 CIS 국가의 비중(2011)
	RF	KAZ	AZE	BEL	ARM	KYR	
ARM	1,753	10	0	0	0	0	34.9%
AZE	17	8	-	0	-	0	0.3%
BEL	5,702	39	0	-	0	0	44.2%
GEO	290	162	2,578	0	0	0	32.6%
KAZ	2,036	-	26	1	0	0	2.2%
KYR	106	257	0	0	0	-	28.4%
MOL	387	1	0	0	0	0	30.4%
RF	-	891	44	156	6	0	0.2%
TAJ	264	44	0	0	0	1	31.1%
TUR	173	1	0	0	0	0	1.0%
UKR	4,333	166	3	29	0	0	7.0%
UZB	991	127	0	0	0	0	16.5%
CIS 총계	16,052	1,706	2,661	186	6	1	-
전체 대비 CIS 국가 투자 비중	4.4%	10.9%	46.0%	90.7%	7.2%	50.0%	-

자료: EDB(2012), 131; UNCTAD(2013), 173, 저자 계산.

유라시아 국가간 원심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유라시아 연합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러시아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생활수준이 높은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의 매력적인 목적지이다(<표 8> 참조).

또한 러시아는 CIS 국가에게 아직도 낮은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러시아는 CIS 국가로 수출되는 원유가격을 CIS이외의 국가로 수출하는 것과 비교하여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물론 체제전환초기와 비교하여 非CIS 국가와 CIS 국가간 원유 공급가격 사이의 차이는 계속 줄어들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CIS 국가들에게 보다 싼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 러시아는 외채제공과 에너지 가격 인하를 제안하였다.

<표 8> CIS 국가의 이주 및 러시아 거주 간 노동 이주 및 이주 송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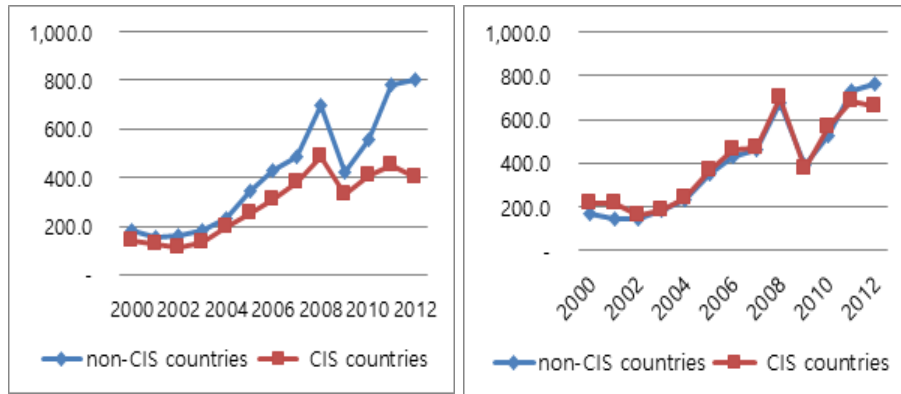
	이주 현황 (천명, 2009년)	러시아 거주 인구(시민권기준) (천명, 2010년)	임금수준 (러시아 100, 2010년)	러시아로부터 이주 송금 (GDP대비 %)
ARM	-3.9	59.4	47.1	10.1%
AZE	0.9	68.0	58.1	1.5%
BEL	12.3	27.7	59.4	0.3%
GEO	34.2	n.a.	51.5	n.a.
KAZ	7.5	28.1	75.3	-0.3%
KYR	-29.9	44.6	22.2	21%
MOL	-2.4	33.9	34.4	3.4%
RF	247.4	-	100.0	-0.5%
TAJ	-11.6	87.1	11.5	38%
TUR	-	5.6	-	0%
UKR	13.4	93.4	40.5	1.4%
UZB	-51.7	131.1	25.0	6.7%

자료: EDB (2012); Choudinovskikh & Denissenko(2013), 8.

<그림 2> CIS 국가와 비 CIS 국가 수출 가격

a) 원유

b) 석유 제품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www.cbr.ru, 검색일: 2014.09.30).

#### 4. 유라시아 경제연합 성공의 제도적 조건

유라시아 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국가들의 구심력은 체제전환 초기에 비하여 떨어지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sup>5)</sup> 이런 상황에서 유라시아 관세동맹이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은 푸틴의 재집권에 있다. 물론 소련해체 이후 포스트 소비에트 유라시아 공간에서는 ‘헤쳐 모여’ 식의 통합의 운동이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EurAsEc)였다.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에서 유라시아 관세동맹이 형성될 수 있었으며 유라시아 연합 추진도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관세동맹이 경제연합으로 확장되는 기간이 짧지만 소련의 제도 유산을 공유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이 지역 국가간 협력의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점에서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형성은 그렇게 생소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심력 못지않게 원심력이 강해지는 유라시아 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조건들이 필요한 것일까? 다른 경제통합과 마찬가지로 유라시아 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제 지불 결제체계, 개방적인 시장, 에너지 및 자원가격의 안정이 필요하다. 물론 장벽의 제거가 가져오는 경제적인 효과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빠르지 않다. 비록 사회주의 소련 시기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이긴 하였지만 소련 해체를 경험한 상황에서 과거의 동일한 관계를 반복적으로 적용하려 한다면 국경을 없애려는 노력에 많은 국가들이 매력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유라시아 연합의 역내 지불수단으로서 하나의 통일된 지불수단이 가능할 것인가는 결국 국제준비 자산으로서 루블화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루블화의 사용은 유라시아 연합에 참여하는 국가들에게 과도한 외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여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과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련시기 형성되었던 CMEA가 남긴 교훈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소련은 CMEA 체제를 통하여 태환가능한 루블을 발행하였다. 소련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

5)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었을 때 두 나라는 관세동맹과 독립된 통화를 취급하는 결제 시스템,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1991년 다른 국가와의 정상교역과 비교할 때 두 나라 사이의 교역강도는 1991년 40배에서 1995년 10배로 줄어들었다. 새로운 국경의 효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났다(Jarko Fidrmuc & Jan Fidrmuc 2000).

들은 고정 환율로 자국의 화폐를 태환가능한 루블로 변환하여 무역을 했다. 태환가능한 루블은 국가 간 대차계정의 단위로서 사회주의 국가들 간 무역흑자와 무역적자를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다.<sup>6)</sup>

그러나 태환가능한 루블은 실질적으로 양자무역에 국한되어 사용되었다. 태환가능한 루블은 사회주의 진영을 넘어서 거래되지 않았기에 역내 통화라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더욱이 CMEA에 참여하였던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국제적 분업생산 체제에 역동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자급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제무역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소련과 CMEA 회원국들은 무역수지 청산을 쌍무적인 협상에 의하여 해결하였다. 특히 CMEA 회원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누적되어 이를 해결하지 않고 더 이상 교역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당사국들이 협상을 통하여 부채를 탕감해주거나 원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회주의 국제협력 체제가 유지되었다. 이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소련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대외무역이 주는 경제적 긴장감은 없었으며 동유럽 국가들은 소련에 대등한 경제적 파트너로 성장하는데 실패하였다.

오늘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상품이 석유, 천연가스, 철, 비철금속, 면화 등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생산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자료가 더 많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유라시아 국가들의 자원의존형 무역구조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유라시아 연합에서 가장 산업이 발달한 러시아도 2000년 156개 품목에서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졌지만 2010년에는 103개 품목으로 그 수가 줄어들었다.<sup>7)</sup> 경제통합으로서 존재하는 EU에 비하여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과학기술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즉 유라시아 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광물자원은 많지만 이를 가공할 기술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농산물 수출 금지에서 볼 수 있듯이 농수산물 자원은 충분하지 않고 또 다양성도 떨어지는 실정이다.

루블이 국제준비자산으로서 매력적이기 위해서는 루블을 가지고 자원을 구

6) CMEA의 국제결제체제는 브레튼우즈 체제를 형성할 당시 케인스가 제안한 국제청산동맹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케인스의 국제청산동맹과 달리 CMEA는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는 기제를 성공적으로 만들지 못했다. 이상준(2012) 참조.

7) N. Volchkova(2011) "Output and Export Diversification: Evidence from Russia," CEFIR Working Paper.

입하고 상품을 거래하고 식량을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유라시아 연합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화폐단위 루블이 국제화되어야 한다. 루블화가 국제통화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정치 안정과 루블화의 미래가치에 대한 신뢰, 역외 거래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개방되고 발달된 금융시장과 폭넓은 거래 네트워크가 보장되어야 한다.<sup>8)</sup>

앞의 두 가지 조건은 러시아와 회원국의 의지에 의하여 결정된다. 하지만 루블의 국제 준비자산화는 폭넓은 거래 네트워크가 국제적으로 수용될 경우에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가능성은 역내국가 뿐 아니라 역외 국가와의 협력으로 달성할 수 있다. 통화 거래의 네트워크 외부효과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러시아와 역외 국가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sup>9)</sup>

러시아 경제가 200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을 누리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로의 적극적인 편입을 추진하였고 WTO에 가입하고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및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는 점은 CMEA 체제의 소련과는 다른 행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금융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루블화의 국제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EU의 제재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루블화의 매력력이 떨어진다면 경제통합은 취약하게 될 것이다.<sup>10)</sup>

경제통합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획득,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로 연결된 글로벌 가치사슬과 공급사슬로의 적극적인 편입이 추진되어야 한다. 유라시아 연합이 발효되면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러시아와 비교하여 다른 참여국의 경제적 규모가 지나치게 작은 비대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유라시아 연합내 러시아의 경제적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2013년 기준으로 CIS경제권의 상위 1개국인 러시아의

8) 벤저민 J. 코헨(1999) 『화폐와 권력』, 박영철 역, 서울: 시유시.

9) 달러 체제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국가들에게 루블화의 국제화와 그 성장은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저항도 적지 않을 것이다. 유로화의 경우 처음 기대와 달리 아직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일부 역내 국가의 금융적 취약성으로 유로화의 가치는 출범시와 비교하여 크게 떨어졌다.

10) 제재로 2014년 10월 중순의 루블화 가치는 연초와 비교하여 25%가량 떨어진 상태이다.



경제 집중도는 75.8%로서 EU의 독일이 20.8%, ASEAN의 인도네시아가 36.0%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비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sup>11)</sup>

이러한 문제로 러시아의 경제적 부담이 예상외로 클 수 있다. 유라시아 연합은 회원국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이다. 회원국간 비대칭성과 발전격차로 인해 회원국들이 공동 통상 정책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EU의 구조조정 자금을 통하여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원을 실행하는 것처럼 러시아도 이러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가간 균형발전과 관련된 첫 번째 문제는 러시아도 국내적으로 지역불균형 발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진행할 여력이 적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본투입이 필요한데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시장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서방의 제재와 러시아의 대응 제재로 이어지는 현재와 같은 대치상황에서 결국 유라시아 연합은 중국으로부터의 자본 확보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흥미롭고 역설적인 것은 최근의 사태로 루블화의 국제화 가능성은 위협을 받고 있으며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가능성은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유라시아 연합의 회원국과 잠재적인 회원국들 대부분은 에너지 및 광물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상품수출의 약 65%가 에너지와 광물자원이다. 유라시아 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팔릴 수 있는 유라시아 연합의 상품이 많아져야 한다. 포스트 소비에트 유라시아 국가들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 자원뿐 아니라 철광석, 금, 레늄, 우라늄, 카드뮴, 요오드, 크롬, 망간, 수은, 아연 등 광물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자원은 과거 시대의 황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에너지와 광물자원이 매력적인 상품이지만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국제시장 가격 변동이 큰 실정이어서 전체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은 국제결제 지불수단으로서 루블화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유라시아 연합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원을 대체할 매력적인 상품 판매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첨단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국제시장에 지속적으로 판매 가능한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11) [http://www.skyedaily.com/news/news\\_spot.html?ID=17482](http://www.skyedaily.com/news/news_spot.html?ID=17482)(검색일 2014.9.30).

현재 러시아와 유라시아 국가들은 현대화 및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수한 과학기술인력과 국가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항공우주, IT, 의료, 원자력, 에너지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유라시아 국가 가운데 산업기반이 취약한 국가들이 많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과학기술 및 산업협력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물류산업에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를 통하여 개별 국가들이 전략적 요충지로서 특화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성장에서 목격되는 국가 간 순차적 경제발전 패턴을 반영한 안행형 발전 모형(Flying Geese Model)<sup>12)</sup>, 동남아시아의 광역집적 지역의 순차적 생성에 따른 수련형(Water Lily Model)<sup>13)</sup>과 같이 유라시아 국가들의 특성에 맞는 발전모델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유라시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발전 모델이 있어야만 유라시아 연합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역내 분업도 활성화될 수 있다.

역내 분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역내 교역 비중을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통합에 참여하는 국가 간 연결성, 수렴성, 보완성, 경쟁성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참여국들의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 효과보다 커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경제통합의 범위와 참여국가에 대해 규범적인 접근보다는 실증적인 접근과 발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U가 여러 어려움을 가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회원국을 가능한 한 많이 참여시켰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경제의 전체적인 총합은 증가하였지만 경제적 차이가 커지면서 EU가 경제통합체로서 가지는 조직의 스트레스와 긴장도가 높아졌다. 이러한 교훈이 유라시아 경제연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회원국을 확대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고려된다면 나중에 관련되는 규범과 규칙을 여기는 회원국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적인 규모만을 일시적으로 늘리기 위한 전략보다는 단계적으로 내실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유럽연합으로 발전하는 과정은 각 단계의 조치가 완벽하지 않으며 따라서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

12) Kojima(2000) 참조.

13) 박변순(2005) 참조.

라서 유라시아 연합 역시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주어진 일정만을 고집하여 회원국을 무차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고민해야 할 것은 경제통합 역외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유라시아 국가들은 국가발전 전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유라시아 국가뿐 아니라 유라시아 지역 이외의 국가와도 협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교역대상국은 EU와 중국이다. 따라서 유라시아 경제연합 이외의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선택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즉 EU가 역외의 국경을 접한 국가와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듯이 유라시아 경제연합도 역외 국가와의 협력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5. 결론을 대신하여

경제통합을 위하여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인적교류를 확대하며 재정적 제도의 차이를 없애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소련 해체 이후 체제전환을 시작한지 20년 이상이 지났지만 포스트 소비에트 유라시아 국가 사이에는 여전히 많은 제도적 공통점이 발견된다. 하지만 그만큼 제도적 이질성도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유라시아 연합은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가 가진 우위를 더 이상 역외 국가에게 양보하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서 출범하게 된다.

소련 해체 이후 마치 딱 눌린 상자 안에 위치한 물건들이 상자를 열자 온 곳으로 흩어나간 모양으로 유라시아 국가들의 원심력은 구심력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러시아가 구심력을 가지고 견인하려던 노력은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에 지정학적 분쟁을 촉발하였다. 러시아가 구소련의 공간에 정치적으로 인위적인 장벽을 허물려고 노력하는 만큼 이들 분쟁 국가들과는 보이지 않은 장벽이 더 높아졌다. 물론 러시아가 내미는 손을 뿌리치는 경우 루한스크, 도네츠크, 트란스니스트리아, 압하지야, 남오세티아, 나고르니-카라바흐 지역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이득을 단기간에는 극대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러시아가 생각하는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경제통합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

경제통합은 정치적인 결정에 의하여 발명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적인 장벽을 없애려는 참여 국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물리적 장벽, 기술적, 재정적, 제도적 기반에 관한 냉정한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유라시아 관세동맹의 성공과 실패가 남긴 경험을 돌이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관세동맹간 무역이 늘었다고 반드시 역내 국가들의 후생이 개선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비관세장벽과 기술적인 장벽을 제거하는 노력은 시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경제통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세제와 금융체계 등을 조화롭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유라시아 연합은 출범하고 운영될 것이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름 자신들의 모델을 정립하면서 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이다. 결국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융, 자원, 식량, 산업 협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경제통합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이들 국가의 몫이지만 역외 국가로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역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한국의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관련된 통상협력 정책은 첫째, 이미 우리 정부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새롭게 정립되는 유라시아 공간에 어떻게 적절하게 재배치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둘째, 새롭게 출범하는 유라시아 연합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경계성을 구분하기 위하여 역외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재설정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유라시아 연합과의 관계를 빠르게 FTA 등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시장개척, 자원개발, 금융교류의 상호 협력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박번순(2005)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지역발전모델의 변화」,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2005.11.17, 6-32쪽.
- 코헨, 벤저민 J.(1999) 『화폐와 권력』, 박영철 역, 서울: 시유시.
- 이상준(2012) 「소련 및 동구권 몰락의 국제정치경제: CMEA를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27:4, 453-484쪽.
- Choudinovskikh, Olga & Mikhail Denissenko(2013) “Migration between CIS Countries: Trends and Policy,” SEARCH Working Paper, No. 3/06, pp. 1-30.
- Cusolito, Ana & Claire Hollweg(2013) “Trade Policy Barriers: An Obstacle to Export Diversification in Eurasia,”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6434, pp. 1-33.
- EBRD(2012) *Transition Report 2012: Integration Across Borders*, London: EBRD.
- EDB(2012) *Eurasian Integration Yearbook 2012*, Almaty: EDB.
- Fidrmuc, Jarko & Jan Fidrmuc(2000) “Disintegration and Trade,” Davidson Institute Working Papers, No. 353, pp. 1-35.
- Kojima, Kiyoshi(2000) “The ‘Flying-Geese’ Model of Asian Economic Development: Origin, Theoretical Extensions, and Regional Policy Implications,” *Journal of Asian Economics* 11, pp. 375-401.
- Locatelli, Catherine & Sylvain Rossiaud(2013) “Russia/CIS Gas,” POLINARES working paper, No. 71 (December), pp. 1-23.
- UNCTAD(2013) *World Investment Report, Global Value Chain*, Geneva: UNCTAD.
- Vinokurov, Evgeny(2013) *Emerging Eurasian Continental Integration: Trade, Investment, and Infrastructure*, Astana: Emerging Market Forum.
- Volchkova, Nataliya(2011) “Output and Export Diversification: Evidence from Russia,” CEFIR Working Paper.
- <http://data.worldbank.org>(검색일: 2014.09.30).
- <http://www.cbr.ru>(검색일: 2014.09.30).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spot.html?ID=17482](http://www.skyedaily.com/news/news_spot.html?ID=17482)(검색일: 2014.09.30).
- <http://www.wto.org>(검색일: 2014.09.30).

**Abstract****Centripetal and Centrifugal Forces of Eurasian Economic Union:  
Focused on the Energy, Trade, and Investment****Lee, Sang Joon\***

Many institutional similarities are found between the post-Soviet Eurasian countries. At the same time, institutional heterogeneity has been observed. Russia is trying to maintain the dominant position in the post-Soviet space by establishing the Eurasian Economic Union. In order to achieve the economic integration, institutional barriers should be eliminated, which requires the help of other member countries. Institutional analysis is required to remove physical, technical, fiscal and financial barriers using experiences of the Eurasian Customs Union. The Customs Union has increased cross border trade among member countries but it still wonders welfare effects of the member countries. Of course, efforts to eliminate non-tariff barriers and technical barriers should be the first priorities for Eurasian Economic Union. In principle, Eurasian Economic Union has provided financial market for resources and food. Also it made possible to access the large market and high technology based on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among the member countries as well as non-member countries. Korea's trade policy to Eurasian Economic Union should be based on how to use and reallocate existing assets among the Eurasian countries and how to make institutional basis for the partnership. In sum, FTA with Eurasian Economic Union will contribute to promote cooperation in resources exploitation, market access and financial flows.

**Key words:** Eurasian Economic Union, Trade, Investment, Interdependence, Successful Conditions of Institutions

---

\* Professor of the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at Kookmin University.

---

**이 상 준**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러시아학전공 교수. 러시아과학아카데미 IMEMO 경제학박사. 관심 연구 영역은 러시아 및 포스트 소비에트 유라시아 국가 경제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러시아 권위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국제자본의 역할」, 「‘더 커지는’ 러시아 경제공간과 한국의 경제협력 전략」, 「러시아 경제와 현대화 전략: 주요 산업발전 전략과 정책」,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가? 모스크바 시민들의 국가에 대한 기대」 등이 있다.

---

**Lee, Sang Joon**

Ph.D. in Economics, Institute of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IMEMO), RAS. Currently Professor at Kookmin University. His main research area is Russian and Eurasian Economy. His recent articles include “The Role of Foreign Capital in the Development of Authoritarian Market Economy in Russia,” “Korea’s Cooperation Strategy for ‘Bigger’ Russian Economic Space,” “Modernization and Russian Economy,” “What Should the State Do to Us? Expectations of Moscow Citizens toward the State.”

---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14. 9. 30
논문심사일:	2014. 10. 10 ~ 10. 29
심사완료일:	2014. 11. 6